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7. 6. 29.(목) / 총 2매
담당 부서	국가공간정보센터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장 백승호, 사무관 정은정, 주무관 박민규 • ☎ (044)201-3495
보 도 일 시		2017년 6월 30(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월 30일(금) 06:00 이후 보도 가능

공간정보 2,560종 목록공개, 4차 산업 민간 창업활용 돕는다 자율주행자동차·사물인터넷 등에 접목...기관 간 협업·민간 활용 활성화

2030년 6월 28일 오전 7시, 건설업에 종사하는 민규 씨는 출근길에서 현장에서 보낸 드론으로 촬영된 3차원(3D) 공간정보를 내려 받았다. 자동차의 자율주행기능을 켜고 영상을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라 전화 지시로 해결한다. 유리창엔 5km 전방에 사고발생으로 사고지점을 우회한다는 간단한 문자가 지나가고 지나가는 길에 위치한 맛집의 신메뉴 할인 쿠폰이 저장되는 차나에 여느 때처럼 사무실에 도착했다.



- 이야기 속 민규 씨의 하루는 더 이상 영화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현실이다. 이처럼 공간정보가 다양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정보가 있는지, 또 이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올해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160개 기관에서 보유한 2,560종의 국가공간정보목록 조사를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결과를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go.kr)에 공개한다.
 - * 국토부는 공공과 민간의 공간정보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11년부터 매년 각 기관별 보유 공간정보목록을 조사·공개함.
- 특히 올해는 전년보다 21개 기관이 증가한 160개 기관이 참여하여 공간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16년 139개 기관(중앙부처 13, 공공기관 16, 지자체 110)
 '17년 160개 기관(중앙부처 20, 공공기관 23, 지자체 117)

- 이번에 조사된 공간정보 2,560종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보속성) 대부분인 85.6%는 도형으로 시각화해서 표현되는 위치기반 공간정보였으며, 14.4%가 문자정보(속성정보)로 나타났다.
 - (정보유형) 지역개발 분야가 52.9%, 일반 공공행정이 25.1%, 수송 및 교통 9.6% 순으로 효율적인 도시기반 시설 관리를 위해 구축·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정보 유형분류		합계	지역 개발	공공 행정	수송 · 교통	환경 보호	농수산	공공질서 및 안전	기타
전체	비율	100.0%	52.9%	25.1%	9.6%	2.1%	1.3%	1.1%	7.8%
	종수	2,560	1,354	644	245	55	34	28	200

- 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도로, 자동차, 도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지능화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자원이다.
 - 국가공간정보센터는 이러한 공간정보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간정보 목록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공간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대국민 창구인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을 통한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가 구축한 모든 공간정보를 국가 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을 통해 손쉽게 내려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 “앞으로도 공간정보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민간에서 공간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차, 드론, 3D 입체영상 등 유망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저작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박민규 주무관(☎ 044-201-34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